

선박 엔진 수리 작업 중 끼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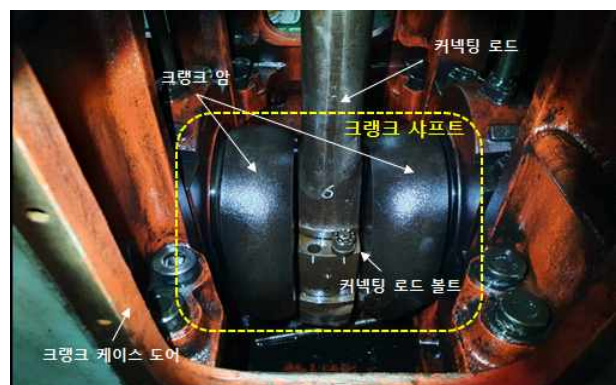
□ 재해개요

2020. 7. 24.(금) 경남 삼천포신항에 정박 중인 선박의 기관실에서 엔진내부의 커넥팅로드에 부착된 베어링을 조립하던 중 크랭크샤프트와 크랭크 케이스 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

□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: 끼임 / 사망 1명



【재해상황도】



【기인물】

□ 재해발생원인

○ 작업지휘자 미지정으로 작업현장 관리 소홀

- 본 작업과 관련한 작업지휘자가 지정되지 않아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 작업과 관련한 정보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시작

○ 메인엔진 기동장치 전원 미차단 상태로 정비 작업 수행

- 메인엔진 기동장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 재해자 신체의 일부가 크랭크샤프트 회전범위 안으로 노출됨

□ 재해예방대책

○ 작업지휘자를 지정·배치하여 작업현장 관리 철저

- 작업과정에서 부적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한 후 작업 실시

○ 기계 정비작업 시 전원 차단

- 메인엔진 정비작업 등 기계 정비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작업 실시

본 속보는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조선업재해예방센터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종 시설의 자체점검 및 적절한 조치실시, 근로자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바랍니다.

인터넷 주소 www.kosha.or.kr/자료마당/재해사례/국내재해사례/조선업 클릭